

민 불 이 되 고 불 세 가 되 자 !

특집호

노들마라톤

노들장애인야학

Nodl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2층 • 연락처 02)766-9101(늦은 6시~10시)
발행인 박경석 • 편집인 조사랑 •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odl.or.kr> • E-mail nodl@paran.com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야학”입니다



[노들바람]

04 노들바람을 여는 창

[노들 in 정립회관_현역편]

- 06 - 청솔반 정
- 07 - 청솔반 은애
- 08 - 불수레반 미정
- 09 - 한소리반 은경

[노들 in 정립회관 14년의 파편]

- 12 - 교장 박경석
- 19 - 동문 심귀황
- 25 - 동문 안민희
- 30 - 동문 이지은
- 33 - 동문 김상희
- 37 - 동문 문애린
- 39 - 운영위원 김종환

[함께하기]

43 2008년 1~2월 후원자명단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77호 2008 · 3

야학현장 · 해화동사무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노들장애인 야간학교

전화 | 사무실 (02)766-9101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http://www.nodl.or.kr> 전자우편 nodl@paran.com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안소진 정상욱 노유리, 김명학, 배덕민, 김호식

디자인 · 제작 크리에이티브 다대(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대(디자인생의 새이름)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 < 편집장 소진

꼭채운 만 4년.
노들을, 마주하다.



노들바람 특집호는,
'노들'을 기억하며 운영위원, 동문, 현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넣어놓았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었는데 이제야 겨우 내어놓습니다.
바쁜 일정에 정신을 놓은 탓도 있지만, 15년을 이어왔던
노들의 그 무게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그 역사와 경험이 담긴
이 글들을, 쉬이 어찌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혼자이야기를 주절주절 내 놓으며, 노들바람을 시작합니다.

부식돌을 이어 노들바람까지
15년 노들의 역사와 함께
소식지도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노들 in
정립회관_현역편





정과의 짧은 대화

청솔반 허정

▶야학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것,

이성을 처음 만났다. 술 마시는 것을 처음 보았다.
공부하고 한글배우는 게 신기했다.

▶제일 놀라웠던 것,

술을 마시는 것과 배우는 것.

▶제일 재미있었던 것,

말하는 것.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

▶사람에 대한 기억.

병선이형 윤경이

▶나는,,

모두 좋았다.

나는 평안함이 좋았고 말은 하는게 좋았다.



예쁜 나비가 곧 찾아오리라.
희망을 담고 향긋한 봄을 따라 찾아오리라.
개나리가 피면 노들의 봄도 곧 찾아오리라.
환한 미래를 가득 품에 안고 찾아오리라.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지기는 봄도
곧 찾아오리라.
하늘과 땅에 꿈을 품고 찾아오리라.

봄은 곧 찾아오리라

청솔반 은애



추억

불수레반 미정

노들에서 추억이 많았어요. 3년 전에 노들에 올라왔어요.

그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올라왔지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한지 1학기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립회관 점거농성을 들어갔어요.

그땐 참 낯설게 느껴지고 무서웠어요. 나도 싸울 수 있을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지난 30년 동안 부모님밖에 모르는 바보인데.

하지만 정립회관 점거농성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러저런 활동도 시작했지요. 나는 보치아 선수가 되었고, 연극배우가 되었어요.

연극을 시작하면서,, 굳어있던 내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2명이나 생겼고 친한 언니들도 있어요.

혼자 갇혀있던 내가 노들을 올라오면서, 친구도 생겼고, 짝사랑도 해보았어요.

연애도 해보았고 헤어져서 가슴앓이도 해보았어요. 사회활동도 시작했고,

내 삶과 모습을 티비에 출연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은이 조은경



노
들

내가 그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손가락질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안 보는 곳에서 훔보는 친척들
 그런 것들을 아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점점 스며드는 시퍼런 멍자국들
 그 멍자국을 지우려고 난 더욱더 그들에게 가까이 갔지만
 그들은 더욱더 나와 내 가족들을 천대하고 무시했다.

난 고등학교까지 나오긴 했지만 모든 과목들은 F학점이다.
 공부는 하고 싶어도 외워지지 않아 학교 다닐 때도 무척 힘들었고
 내 병 때문에 수업도 많이 빠졌었다.
 내 병명은 간질이면서도 우울증이다.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부모님이 무척 애를 쓰셨다.
 일반인들이나 신체장애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간질환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온다.

예를 들면

무심하게 결눈으로 봤을 땐 혹시 나를 흘겨보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
또 그렇게 되면 직접 확인을 못하고 마음만 아파한다.
그렇게 살다 보니 친구 한 명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 사람들 속에 나도 역시 포함이 된다.
그렇게 42년을 살다가 무심코 알게 된 노들학교.....

이 곳을 알게 되면서

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어두운 밤길을 안내해 주는
조그마한 초롱불과 만난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하는 생각은 지금도 있다.
대학에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전공을 배워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내 뜻을 노들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난 앞으로 노들에서 열심히 그리고 많이 배워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물려주고 싶다.
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노들 in
정립회관 14년의 파편들



노들 in 정립회관 14년의 파편들

노들야학교장 박경석

파편 하나.



93년. 그때는 야학 공간이 정립회관 본관 3층인 지금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 자체적인 교무실은 커녕 공부할 공간도 없었다. 그래서 체육관 2층 탁구장을 빌려서 낮에는 탁구장으로, 밤에는 수업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수업을 기다리는 교사는 교무실이 아니라 탁구장 밖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고, 탁구장에서의 수업은 칸막이를 치고 두 반으로 운영되었다.

가르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잠자는 소리를 스테레오로 그대로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성적과는 관계없이.

나는 그때 열심히 학생과 교사를 아차산역에서 정립회관까지 실어다 날랐다. 돈 못 버는 운전자였다. 그리고 열심히 장애인 학생과 교사를 꼬셔 야학에 다니라고 했다. 그때 노들에서 나는 정식교사가 아닌 주변인이었고, 야학의 운전자이자 공급책이었다.



파편 둘.

94년. 노들에서 주변인으로 있다가 1년쯤 지나 노들야학 교사가 되기로 하고 신입교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 당시는 야학교사를 모집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때다. 그때 신입교사를 훈련시키겠

다고 거들먹거린 교사가 심귀황이다. 그는 내게 장애인관련 문건을 하나 주더니만 오타를 다 찾아오라는 식으로 훈련시켰다. 기가 차고 코가 막혔지만, 오타를 찾아 가져갔다. 그리고 멍하니 교무실을 지키는 일만 했다. 그것이 신입교사 훈련이었다.



노들은 1년쯤 탁구장에서 생활하다가 후에 현재의 공간으로 이사와 교무실 하나에 교실 2개의 공간을 갖춘 어엿한 야학이 되었다. 심귀황은 내게 뺄하면 청소를 시켰다. 비장애인인 심귀황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인 나에게 청소 못한다고 구박했다. 나보다 몇 개월 먼저 야학에 올라와 교사가 된 김도식(일명 김또식)은 선배교사 품을 어지간히 내면서 거들먹거렸다. 뺄질이였다. 청소도

안했다.

그 당시 노들은 야학이라기보다는 주학(酒學)이었다. 학생들은 거의 다 정립전자 직원들이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전형적인 주경야독(晝耕夜讀)이었다. 그런데 공부만 끝나면 야독이 아니라 술독에 빠졌다. 그 전통은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사고도 많았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싸우다 울기도 하고. 술에 취해 3층에서 뛰어내린 심귀황은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은 술 때문이었다는 전설이 있다. 술은 야학의 역사를 만들어 간 중요한 거시기였다. 술 먹고 야학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수업을 빵구낸 사건 때문에 교사대표가 교실에서 펑펑 울기도 했다.

그때 짠했던 마음이 여전히 술잔에 남아 있다. 술로 교사대표를 위로했기 때문이다. 야학에서 밤새 술 먹고 다음날 해장술하고 저녁에 어슬렁 어슬렁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 마치고 또 술을 마셨다. 그렇게 일주일을 연썹 술을 마시며 노들을 지켜내었다. 그때 그 시절 술을 잘 먹는 전통은 지금도 유유히 노들의 강에 흐른다.

정립회관 본관 3층에 노들야학이 있었다. 그 당시 정립회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3층까지 경사로로 휠체어를 밀고 갔다. 혼자서 밀고 갈 때면 미치는 줄 알았다. 눈물의 미아리 고개 저리가라였다. 그래서 언제나 튼튼한 교사가 밀어주길 학수고대했다. 그때 핸드폰도 없어서 3층에 있는 교사를 부르기도 하늘에 별 따기였다. 그때 그 시절에, 열라 고생했다.

파편 셋.

96년. 성남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취직해서 총무과장으로 일했다. 낮에 일을 마치면 허겁지겁 짐 챙겨서 야학으로 달려갔다. 미친 듯이 밤의 시간이 좋았다. 야학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한잔하고….

일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날 즈음, 직장에서는 내게 야학을 그만두고 좀더 직장에 충실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고민했다. 심각하게^^ 돈도 생기지 않는 야학에서 계속 할 것인가. 생계유지를 위해 복지관을 계속 다닐 것인가.

나의 인생에서 진짜 남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래서 주저 없이 노들을 선택했다. 백수가 되었다.



파편 넷.

97년. 교사대표가 되다. 매년 교사회의에서 교사대표를 도전했다. 도전했다기보다는 누군가 추천했고 나갔다가 추천한 친구의 표도 없이 빵 표로 떨어졌는데.. 근데 이번에는 되었다. 교사대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모두가 배를 꺾어버려서.. 암

담했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개인 사정으로 퇴임해버려서 남은 교사가 5명도 안 되었다. 캄캄함, 그 자체였다.

파편 다섯.

98년. 노들은 전국장애인가족협회의 부설로 운영되었다. 교사대표를 거쳐 당당히 교장이 되어버렸다. 급속 승진이었다.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맞서 에바다 투쟁을 치열하게 했다. 교사 양현준이 평택시청을 점거하다 공무원들에게 두들겨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다. 장난이 아니었다.

파편 여섯.



99년. 전국장애인가족협회가 한국DPI와 통합을 하게 된다. 노들은 통합을 하지 않고 홀로 남게 되었다. 서로 생각하는 운동 방향이 달랐다. 외로웠다. 무지. 우산도 없이 비 맞는 기분이랄까.

노들에도 상근자를 두었다. 김도현. 에바다 투쟁하면서 꼬셨다. 자랑스럽게 한 달에 30만원으로 꼬시는 데 성공했다. 노들 상근활동가 1호이다. 그때 그 시절 너무나 쥐꼬리만한 활동비와 엄청난 노동착취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한 현실에 가슴이 저리듯 아프다.

파편 일곱

어느 해인가. 기억나지 않는다. 정립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생겼다. 그래서 3층까지 경사로로 올라갈 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기분이 좋았다.

파편 여덟.

2000년. 야학 학생이었던 정숙누나가 돌아가셨다. 정립전자에서 일을 마치고 샤워를 하다가... 가슴이 찢어지듯 허무하고 아팠다. 46세의 나이로 정립전자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몸이 아파도 숨기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한번 쫓겨나면 이제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그 아픔을 견디다니.

파편 아홉.



2001년. 1월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타다 ?)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동권투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야학학생과 교사들을 꼬셔서(학문적인 언어로 '조직하다') 서울역 지하철 철로를 점거했다. 그때 사회적으로나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이동권 문제가 한창이었지만, 야학 내부의 최대 논쟁은 공부가 먼저이냐, 데모가 먼저이냐 였다. 결론은^^ ??? 이동권투쟁은 계속되었다.

파편 열.

2004년.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이 시작되다. 노들도 함께 하다.



파편 열하나.

2007년. 헉헉... 14년을 왔다. 더 많은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다. 다 주워 모으기에 버겁다. 이제 나가야 한다. 정립회관을...

14년의 파편들은 눈물나도록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노들에 있게 했다. 너무나 가슴 저리는 친구들이 노들에 있다. 나는 계속 노들에 있고 싶다.

1993년, 기록상 신임교사1호~!!

노들야학 교사 지원서

성명	한글 심귀황	소속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3학년
	한자 沈貴皇	종교	
	영문 B. H.		
태어난날	[Redacted]		
고향	[Redacted]		
현주소	[Redacted]		
연락처	[Redacted]		
지원동기	심심		
가르치고 싶은 과목	국어, 가정, 가사, 농담, 음악.		
하고 싶은 말	가다 지치면 쉬어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전방까지는 안고 항상 예쁜 웃음 잃지 말고 혹은 어떤 가동있으면 좀이주며 배려. 잘 살아보세.		

본인은 워터마크 노들야학 교사를 지원합니다.
노들야학의 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심귀황 [Redacted]

1993년 7월 14일

절망해도 괜찮아, 눈감지만 말아줘

노들야학동문 심귀황

약력:

노들야학 창립멤버, 노들교가 작가, 노들은 노란들판의 약자임을 공저, 박경석 김도식 장선정 김명학 외 다수의 인재를 컨설팅하여 바람직한 활동가의 길로 육성시킴, 그리고 본인은 자본의 늪으로 사라짐. 특기는 씨 뿌리고 후배들에게 떠맡기고 본인은 발빼는 거.

1.

희망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거짓된 희망의 반복은 오히려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학에서 말해주는 학습된 무기력은 생활의 결과들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기대할 때 초래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한다. 이를 수 없는 희망이라면 얼마나 가혹한 불행인가.

절망 [絶望] [명사]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림. 또는 그런 상태.

고민하는 힘을 가지고 ‘더불어 산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서로 부딪치고 만나고 하면서’ 해결해나간다. 살기 힘든 것과 약함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찾아나가는 진정한 유대야말로 인간 회복을 가져온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사이토미치오] 중에서 인용).

2.



십 수년이 지나고 보니 기억도 가뭇하고 자랑스럽게 꺼내서 보여줄 일화도 없는 것 같다.? 가끔 포장마차에 앉아 술마시다가 이슴하게 떠오르는 영상이란 사람들의 눈물이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울렸다. 특히 신연이,... 왕눈이라고 놀릴만큼 큰 눈을 가진 착한 그아이의 눈에 모래알 같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게 했다.

계란판으로 교실 방음벽 만든다고 동네 계란가게 돌아다니며 닭똥내 물씬 풍기는 계란판 얻으러도 같이 다니고 교과서 구한다고 청계천 헌책방을 몇시간이고 돌아다닐 때도 마다않고 함께 고생을 나누는 그 아이가 가슴이 먹먹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뱉어 내게 했다.



막똥(장선정)이는 새내기 교사훈련 때부터 눈물을 쥐어짜게 해서 지금도 맘에 걸린다. 야학교사 되겠다고 어려운 맘 결심해서 올라온 사람을 괜한 트집잡아서 “그따위로 하는 교사 필요없으니 당장내려가라”고 가슴에 못을 찔는데도 눈물 몇 방울 훔어내고 잘 참고 교사대표까지 잘 해주어서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는지...

창기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내 못된 시달림을 참다못해 주먹으로 반항했었다. 그 성격 좋고 결결한 녀석이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으면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난 참 나쁜 형이다. 일안이는 내가 눈물을 떨구며 도움을 호소하여 야학교사가 되었지만 아차산에 오른 후에는 온갖 힘든 일 다 떠넘겨지고 내 뒤치닥거리까지 하느라 한 시절을 보내게 했다.

김혜옥은 그 모든 것이 힘들었던 것 같다. 술기운이 돌면 학습된 눈물을 흘렸다.

박경석, 술과 여색으로 인생을 탕비하고 있던 불량학생을 모진 훈련과정을 통해 교장선생님으로 육성했고 남은 여생 어느 곳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선명하게 가슴속에 새겨준 기쁨은 남다르지만 십 년을 넘어 오랜 속앓이에 대나무처럼 세차던 머리결이 흰 파뿌리로 변한 모습을 보면 혼자서 울었을 밤들이 헤아려진다.

경석형아 미안합니다. 나는 노들의 살아있는 脈이 아니라 사악한 脈이었습니다. 몇 명 이름을 부르다 말았지만 짧지도 않은 몇 년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아픈 한 죄로 그들이 흘렸을 눈물들이 한움큼씩,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거나 흐리거나 눈이 오거나 꽃잎이 날리거나 낙엽이 날릴 때마다 내 가슴을 후려칩니다.



3.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눈을 감지않고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알수 있다. 고민하는 힘을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다.' 지금의 문제를 풀기위해 '서로 부딪치고 만나고 하면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

공간을 만들어내기 힘든 현실과 우리가 가진 자본의 빈약함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진정한 노력이 노들의 하나됨을 가져온다. 그렇게 뭉친 힘으로 차별에 저항할 때 폴포츠의 One

chance 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온다. 차별의



벽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

처음부터 노들야학에 주어진 공간은 없었다. 이상호 선배님을 비롯한 장청련 선배들의 노력으로 확보된 공간이었지만 우리들의 공간은 아니었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정립회관을 벗어나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4.

새로운 공간은 노들이 창업이라는 모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공간이기를 제언한다. 중증장애인이 창업한다면 세상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 상상속의 차별을 깨야한다. 낮에는 창업을 하고 밤에는 모여서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창업 노하우도 나누는 노들장애인야간 학교 창업주식회사로 변화될 수 있다.

만원 창업부터 시작하면 된다. 제도의 차별에 저항만 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면 자칫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마치고 민주노동당에 주어진 숙제에 눈을 떴으면 안된다. 노회찬은 민노당의 정체성만 빼고 모두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정체성도 현장과 현실에서 멀어져있다면 바꿔야한다. 정체성은 존재의 이유이다.

정체성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희망”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일 우리의 모습”이고 내일 그려질 우리의 모습은 매일 매일

변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곳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전략이다.

낮에는 창업의 현장이 되고 그곳에서 밤에는 야학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노들의 내일을 제안해본다. 차별에 대한 저항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별에 저항하려면, 긴 싸움에서 버티려면 살아남는 방법도 준비되어야 한다.

2000년 미니미니 신임교사시절^^*

노들장애인아카데미 교사지원서

성명	한글	안민희		소속	
	한자	安 珮 熙		학과	3학년
	영문	Ahn Min-hee		종교	
태어난 날	[Redacted]		고향	전북	
고향 주소	[Redacted]				
현주소	[Redacted]		호출번호		
연락처	[Redacted]		3.		
가르치고 싶은 과목	1. 수학				
지원동기	신앙을 키우는 좋은 자리 고맙...				
하고싶은말	리얼하게 양육을 도와주세요!				

본인은 위와같이 노들아학 교사를 지원합니다.
 노들아학의 고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3월 8일
 성명: 안민희

노들장애인아카데미교장 귀하

짧은대화

동문 안민희

참, 좋지 않은 기억력이다. 눈을 닫고 흔적들을 더듬어 본다. 손가락 끝에 오돌도돌 매만져지는 오름들. 눈을 연다. 방금, 무엇이었지? 다시 눈을 닫는다. 손가락은 오름들 사이를 헤맨다. 아주 오래 전 흘러가버린 무언가의 흔적. 낱아버린, 메마른, 그러나 지워지지 않을 그것들. 어떤, 흐름이었을까?



오래만, 이라고 말을 시작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아니, 아주 좋아요. 나 그 말, 참 좋아해요. 사실, 내 일기의 대부분은 그 말로 시작해요. 워낙 오랜만에 그 녀석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좋은 건, 그 녀석한테는 숨기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죠. 당신도, 오랜만이에요.

스무 살 시절들은, 무엇이었나요?

내 스무 살 시절들을 통 잘라내서 햇볕 잘 드는 곳에 바짝바짝 말려내면, 당신이 남을까요? 젊음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김산 알아요? 그이가 그랬어요. '나는 내 젊음을 어디에선가 잃어버렸다.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내 스무 살 시절들은,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기꺼이 날 용서할 거예요.



처음은, 어땠어요?

밤이었고, 봄이었고, 길이었어요. 언덕길, 어떤 꽃향기를 따라 걸었던 것 같아요. 언덕 끝에 쓰러질 듯 겨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칠 벗겨진 철문이 있었죠. 언덕 끝, 거기는 정상(꼭대기)이 아니었죠. 정상(꼭대기, 바람)일 수 없는 곳,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무엇이 저를 데리고 갔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냄새를 거의 못 맡거든요.

두렵지, 앓았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크지는 앓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잖아요. 사실 그 때 난, 오히려 아주 많은 것들을 버리려고 했어요. 시작이라는 건, 조금씩 버려나가는 작업이 아닐까도 싶어요. 나에게 당신은, 그러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순간, 당신을 기억해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없는 것처럼.(웃음) 자주 듣던 말 중에 '어, 너 있었네?'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존재감 없는 캐릭터, 어떤 녀석이 저에 대해 꼭 집어냈던 간단명료하고 단순명쾌한 정의였죠. 그래도 그 말, 나 또 참 좋아해요. 아마 지금 내 안의 누군가는 살짝 웃고 있을 거예요. 아주 아주 오래 전, 내가 하나의 점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그이는 내가 그리 살기로 결심했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리고 충고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죠, 되도록 흔적을 남기지 말 것. 내 안의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마음 아플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존재를 인정받는 건, 참 기쁜 일이잖아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이 지루한 대결은 끝을 모르죠.

늘, 흔들리던 모습이 선해요.

미치지 못했어요. 미칠 수 없었죠. 내가,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었거든요. 시작은 참 단순했는데, 사실 나를 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담장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게 주변을 맴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신한테, 미안해요.

소주 마실 때 무슨 생각해요?

(망설임 없이) 아무 생각 없어요. 허, 이 말이 참, 이리도 당당하게 나올 줄이야. (잠시 후) 잊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글썄, 무엇을 잊고 싶었을까요.

사람이었다.

아까부터 흥얼거리던, 그 노래는 뭐죠?



겨울나무요.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이렇게 시작하는. 혹시 이 노래 2절 알아요? (노래를 부른다.)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 피던 봄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나, 이 말도 참 좋아해요.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늘, 한.자.리. 그런 생각 했었어요. 나무는 바람의 존재를 알려주는 친구고, 바람은 나무에게 세상 이야기 들려주는 친구이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엔가 갑자기 그 사실에 가슴이 베어낸 듯 아팠어요. 바람은 나무에게 머물 수 없잖아, 나무는 바람을 보내야만 하잖아, 머무른다

면, 보내지 않는다면, 바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바람을, 좋아해요?

많이 좋아했죠, 아주 많이. 지금도 물론 좋아해요, 예전 처럼은 아니지만. 요새는, 몸에서 마른 먼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면, 아주 짧은 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질, 그런 아무 점성 없는 덩어리마냥. 바람이, 데려다 주겠죠, 어디든.



내가, 싫어요?

(크게 웃음) 늘 그렇게 대놓고 묻던 사람이 있었어요. 싫지 않아요. 미치도록 좋아하지도 않지만. 슬픈 일이죠.

비가, 올 것 같죠? 후둑후둑, 잠깐 비가 내렸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을 텐데. 바닥에 점점이 자기 존재의 흔적을 남기던 빗방울들은 어느덧 경계가 없었다. 온 대지가 비로 뒤덮였다.

야학, 그리움...

동문 이지은



1. 야학, 그리운 이름이다.

야학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 바로 옛그제 같은데..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나는 참 무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나는 울면서 읽은 책의 줄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그 느낌만을 기억 할 뿐이다.

그런 나에게 야학은 참 그리운 이름이다. 노란들판처럼 풍요로운 느낌이다. 그리고 따스한 공간이다.

2. 두드림... 낮설음... 그리고 중독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반겨주는 이가 없었다. 뻔뻔하고 어색했다.

“뭘까?!” 참 이상한 곳이다. 그러면서?나는 야학에 오르고 있었다.

그것도.. 헉헉 되면서 어찌나 높은지. 그리고 익숙해질 때 즈음, 나는 이곳에 중독되고 있음을 느꼈다.

3. 야학? 주막?

야학은? “주막”이다.

누가 왔다고? 누군가 나서서 생색 내지 않고 어울리는 곳.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부쩍이는 “주막”이다.
어울려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곳.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다.

4. 소통

야학은 통로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곳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따스한 공간이다.



5. 비밀

야학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비밀....어쩌면 아픔 일지 모를 비밀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

6. THE END

야학을 떠나면서 나는 안 좋은 것만 생각 했었다.

서운한 기억들...낯설음...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한없이 좋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야학을 보니 야학은 참 사

람 냄새 나는 곳이었다. 흥호형의 대책 없는 사람 좋음이 좋고, 묵묵하지
만 서글서글한 정윤이 형이 좋고 정민이 언니의 피꼬리 같은 목소리가
그립고, 수다스러운 귀여운 로맨티스트 미정언니가 좋고,
문주형의 눈웃음이 그립고, 명학의 형의 양증맞은 배려가 그립고, 은영
언니의 터프함이 좋고, 명동이 형의 잘생긴 얼굴이 그립고, 우리반, 불수
레반, 한소리반 사람들 모두가 그립다.

무엇보다,
나이,,, 학벌... 껍질을 벗어던지고 까발리고, 이야기 하는 그 소통의 공간
이 그립다.

노들을 기억하며

동문 상회

1. 이동권 투쟁을 하다.



노들을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겨울, 그 당시에 나는 방문 학습 봉사자 언니의 도움으로 고입검정고시를 통과하여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봉사자 언니가 취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나의 공부를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봉사자 언니와 함께 대책을 고민하다가 문득 검정고시 시험 장소에서 보게 된 파란 봉고차에 썩진 ‘노들장애인야간학교’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그 자리에서 바로 홈페이지 검색을 하여 게시판에 문의를 하는 글을 올렸고, 몇 주 뒤에 교사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노들 야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야학과

나와의 인연은 이동과 활동보조 문제에 직면하며 시작되었다.

그 때 우리 집은 신림동 산꼭대기에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3층 집이었다. 따라서 내가 한번 외출하려면 이동할 수 있는 차와 3층에서 나를 업고 내려와 줄 사람이 필요했으며, 외출을 반대하는 가족과도 한판 전쟁을 치러야 나올 수 있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학을 다녀야 했고, 무엇보다 신림동과 구의동은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었다.

야학에서는 나의 이동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능한 것을 다 이용하려 한 것으로 기억한다. 차를 갖고 있는 동문들, 차량 자원 활동가들,

교장쌤, 노들봉고 등 야학과 관련된 네 바퀴 달리고 굴러가는 자동차라면 한 번씩은 우리 집에 왔다갔을 것이다.

또한 3층인 우리 집에서 나를 업고 내려오는 일도 만만치 않는 일이었다. 21살의 약간 포동포동하고 키도 길쭉한 성인 장애여성을 업고 내려 올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 친언니들은 가능하지만 일주일 3번씩은 무리이다.

그래서 야학에서는 차와 함께 나를 업을 수 있는 남자교사들로 팀을 짜서 차량 운영을 하였다. 그런데 그 때 남자교사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라서 개강할 시기가 다가오니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시간이 되는 여자교사들이 나를 업는 연습도 해 보았지만 어렵없는 일이었다. 할 수 없이 개별 차량 지원을 중단하고 노들 봉고 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난 노들 봉고를 타고 야학 학생분들 집을 찾다다니며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야학에서 수업 받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였다. 아마도 이 때 야학은 나의 등, 하교를 담보하는 것만으로 큰 투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와서 살짝 고백하자면 아무리 멀리 가도 멀미 한 번 안 하는 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이동 때문에 많은 고민으로 힘들게 했던 점들은 아직도 고맙고 죄송스런 마음도 많지만 나에게 좋은 추억이었고 가끔 노들 봉고차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

2. 잊지 못할 노들

이 글을 청탁받고 며칠 동안 노들에서 경험한 추억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몇 가지 일들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있다.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던 시절, 차량이 지원이 안 돼서 교사 두 분과 함께 지하



철을 이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지하철역은 가는 길이 급경사인 언덕길로 되어 있고, 휠체어 리프트조차 없었다. 생전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이 날, 교사분의 능숙한 휠체어 운전 솜씨로 그 많은 지하철 계단을 수동휠체어에 앉은 채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냥 걸어 올라가도 숨차다는 정립회관 뒷길을 수동휠체어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나를 밀고 올라 온 그 교사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던 모습이 생각나곤 한다.

그리고 매우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정말 감동 받은 일이었다. 그 날은 야학 가는 날이었다. 가족과 심한 말다툼을 하고 나와 수업을 받고 교장쌤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은전언니(실명을 거론해서 미안.... ㅎㅎ)와 함께 하교하는 길.

오는 동안 그날 가족과 있었던 일을 열변을 토하며 말하였고 집에 들어가 기 싫어하는 내 마음을 눈치 채신 교장쌤이 집 근처까지 와 놓고선 다시 차를 돌려시겠다고 하셨다.

은전언니랑 술이나 한 잔 하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은전언니도 괜찮다고 하면서 함께 있겠다고 했고 교장쌤은 차를 돌려서 혜화동에 있는 한 포장마차에 나와 은전언니를 데려다 주고 술 한 잔 하고 나면 전화하라고 하시곤 하셨다.

그 날 은전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내겐 너무 많은 힘을 주었고, 지금도 그 기억에 은전언니를 보면 왠지 모를 반가움을 느낀다.

다른 학생들보다 야학을 오래 다니지는 못 했지만 이 공간에서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할 수 있었다. 노들의 통해 내 장애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고, 차별에 맞서 싸울 힘이 생겨났다.

현재 나는 장애여성 인권 운동을 활동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하던 독립을 이루어내어 작은 나만의 공간을 꾸이기도 하였다. 내

삶이 바뀌어 온 것처럼 야학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이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언제든 정립회관 3층에 가면 야학이 있을 것만 같았는데 곧 떠난다고 한다.

요즘 야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들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노들만의 방식으로 잘 넘길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야학이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분노 해 왔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노들을 기억하며.

동문 문애린



2000년 늦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두근 거리는 가슴을 안고 노들에 학생으로 입학 하고자 인사차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한 층 다른 모습의 교장 쌤(항상 영감님이라 부르다가 오랜만에 교장쌤으로 부르니 감회가 새롭다! ㅋㅋ)과 도현이 형이 -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두 분 다 젊은 청년의 생기와 발랄함이 있었다. ㅎㅎ - 어색해하면서 반갑게 맞아 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졸업 때까지 2년여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줄기차게 노들의 애마인 봉고를 타고, 야학과 집회 현장을 오가며 나도 모르게 조금씩 노들에 동화되어 갔는데... 허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한 동안은 적응 하기가 힘들어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과 방황을 하기도 했었다.

음.. 어찌됐든 노들은 장애인 야학이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미약하게나마 교육을 가르쳐 주는 곳인 줄 알았고 또한 나를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각각 일터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며 배움의 꿈을 안고 왔는데, 근데 웬 걸! 난생 들도 보도 못한 집회 현장으로 나가 시켜면 전투복의 전경들과 사이좋게 대치하며(히히~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나서리^^;) 생소하다 못해 입에서 잘 나오지도 않은 구호와 민중가요를 목이 터져라 외쳐야 했다.



거기다 교사와 학생들은 모였다 하면 야학의 교육과 운동을 주제로 피 튀기는 의견들 속에서 갈등도 많았고, 또 그때가 한창 이동권의 투쟁이 벌어지던 때라 더더욱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고민들은 야학을 떠나서 장애인 삶의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모두가 풀어야 될 과제였고, 그 것은 결국 학생과 교사들이 치열하게 부딪치며 안고가야 될 우리의 모습 노들의 모습이 었기에 지금까지도 가슴 한 켠에 그 시절이 고스란히 새겨져 가끔 그 때가 그리워 혼자 웃음을 짓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운 것이 있다면,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눴고 같이 했던 노들 사람입니다! 막강한 한소리 반을 비롯하여 불수레, 청솔반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무척 보고 싶지만 우리가 노들에서 해왔던 것처럼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노들은 이제 14년 간의 뜨거웠던 흔적들을 뒤로 한 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한다. 앞으로 우리의 선배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즐겁고 치열하게 또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은 노들이 되길 바란다.

거침없이 하이킥!!

공부하며 투쟁하고, 투쟁하며 배우는 곳

운영위원 김종환



이동권투쟁

잠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던 2001년 1월 새벽 6시경 영업용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 한토막이 흘러나왔다.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노부부가 숨지고 다쳤다는..... 나는 가슴 한켠이 막막해짐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하나..... 순간 경석형이 떠올랐다. 택시를 길가에 세우고 바로 전화통화를 했다. 당시 현장투쟁을 그나마 책임지고 있는 단위는 노들야학 밖에 없었으므로..... 박경석 교장은 바로 현장에 나가 상황을 알아보고 항의 집회를 조직했다.

그렇게 장애인운동의 한 획을 그은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현장 투쟁의 앞견에는 늘 노들야학의 학생과 교사들이 있었다.

정립회관과 노들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야기 한자락이다. 1993년 (92년부터인지도 모른다)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아래 장청)는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야학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수십 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야학 설립을 준비해나간다. '노들'이라는 이름은 당시 실무주체로 함께 했던 단국대 특수교육과 학생이 노란들판의 의미를 설명하며 제안해 정해졌다.



장소 문제는 수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광진구의 한 교회 등을 포함해 지역사회 안에 만들지, 정립회관내에 만들지..... 당시 정립회관은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장애청년들이 밀알, 올림티 등 여러 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온 곳이다.

90년과 93년에는 황연대 당시 관장과 정은배 이사장의 시설비리 문제로 두 번에 걸쳐 점거농성을 진행한 장애인운동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다.

또한 백여명 이상의 장애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정립전자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재정적인 부담과 중증장애인의 접근성 등의 문제로 정립회관내에 야학을 두기로 결정했다.

93년 8월 노들장애인야간학교는 개학한다. 초대 교장은 당연히 당시 장학 회장이던 손복목 회장이 맡았다. 그러나 장학은 당시 전국장애인청년조직의 건설 실패 이후 대중력 부재와 재정구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국장애인가족협회(아래 전장협)와 통합을 논의하고 있었고, 노들야학이 만들어진지 두달여만인 10월경 통합수련회를 갖는다. 이후 노들은 전장협의 부설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가 98년경 전장협이 한국장애인연맹(DPI)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독립하게 된다.

함께한 사람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노들야학과 함께 했다. 지금 현장을 책임지는 중증장애활동가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노들을 거쳐간 동지들이 참 많다. 졸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늘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노들야학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꽤 많이 있다. 돈문제 등을 일으키고 사라진 2대 교장, 장애인식에 대한 부족

으로 수없이 학생들과 부딪힌 초기 몇몇 교사들(그 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교사인준과정이 부족했다), 허구헌날 벌어지는 술판 속의 사람들.....

그래도 제일 강력히 떠오르는 사람은, 11년 장기집권하는 박교장을 제외하고는 단연 명학형님이다. 늘 부처와 같은 표정으로, 씌주 좋아하고, 졸업은 하지 않고, 원고 청탁하면 맨날 똑같은(정말 비슷하다) 내용의 글을 주는 한결같은 형님. 교사중에는 심귀황 교사가 기억에 남는다. 같이 경험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나지도 않는데, 참 독특한 캐릭터로 인상깊게 남아있다.

나는 노들이 자랑스럽다.



80년대 말 나는 2년여 동안 공장생활을 하면서 생활(노동)야학을 두 번 경험했다. 낮엔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밤엔 야학에서 근로기준법과 풍물과 노동가요를 배웠다. 당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직후라 모든 사업장에는 투쟁의 기운이 넘쳤다.

나도 야학에서 배운대로 주말이면 집회현장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다니던 직원 30여명의 마찌꼬바(영세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다가 사장의 위장폐업으로 쫓겨났다. 나에게 야학은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련의 붕괴와

운동의 전반적 퇴조속에 생활야학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요즘은 오로지 학력을 얻기 위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노들은 달랐다. 공부하며 투쟁하고, 투쟁하며 배우는 곳. 개교 이후 노들은 장청이 야학을 통해 가고자 했던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올곧은 길로 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떠나간 교사나 학생들도 있다.



한국사회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현실속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도 큰 의미는 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 잡으면 그야말로 '효도' 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야만의 사회를,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꿔내려는 혁명적 생각과 행동이 빠져있으면, 그 길은 이 사회가 끊임없이 재생산해 각인시키는 '인간승리' 일 뿐이다.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동권투쟁, 그 점거한 선로위에, 점거한 버스 안에서 노들야학 동지들이 가장 앞자리에 서있음을 본다. 교육권 식발투쟁, 한강대교 노들섬 진격투쟁에도 많은 노들 동지들이 머

리를 꺾고 다리 위를 기었음을 본다. 중증장애인들의 혁명적 활동가 재생산의 공간으로 노들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14년 그리고

이제 14년이 흘렀다. 그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거쳐간 사람 숫자만큼이나 노들은 나이도 먹고 덩치도 커졌다. 그러나 그 커짐은 비만도, 영양실조도 아니다. 아주 건강한 젊은이의 모습이다. 공부하며 투쟁하고, 투쟁하며 배우는 곳.

그러나 또한 늘 깨어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영양실조나 비만이 찾아올게다. 노들 식구들 모두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한걸음 내딛을 때이다.

근데 명학영아는 언제 졸업하우? 내일 술 한잔하면서 물어봐야겠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2008년 1~2월

〈지로후원〉

나은정 박현우 서울전자산업

〈자동이체후원〉

강점순 서정희 김경혜 신동길 이민규 서금석 윤정미 고명선 은종복 정옥순
윤종배 손우정 배상군 강재민 김기형 김종옥 오선실 고기연 이현옥 박경순
힘찬박수 안성희 황미향 박경선 이현숙 임정희 민여경 박성희 강미애 손은혜
정진용 김미선 유비에프대학로 지은경 백연희 박미영 박소영 김동호 송현정
진은주 박은지 홍영선 류동훈 이현화 유별라 이지은 구자숙 김민정 유정옥
최상희 장세진 최혜림 김용철 윤정임 김유경 김판균

〈cms후원〉

강경완 강광숙 강귀화 강명진 강미향 강병완 강상우 강성윤 강소영 강영미
강정자 강주성 강현옥 강현정 강희관 고명희 고봉석 고이라 고양숙 고은선
고제현 고택호 고희영 곽노근 곽성자 곽은주 구경민 구현아 권경미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병주 권영진 권재수 권진영 권태국 김가경 김가영 김건옥
김경혜 김경혜 김계옥 김근식 김기룡 김기오 김남수 김대희 김덕훈 김도현
김도훈 김동진 김동호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명희 김문주 김문호 김미애
김미자 김민림 김민수 김민수 김민지 김민희 김범식 김병기 김보연 김상미
김상윤 김상희 김선옥 김성미 김성현 김수정 김숙이 김승혜 김신자 김애경
김연선 김연옥 김연희 김영민 김영선 김영숙 김영승 김영환 김영희 김용성
김용욱 김우경 김유리 김유미 김유진 김윤사 김윤정 김은미 김은천 김익현
김장원 김재경 김정구 김정내 김정민 김정연 김정은 김정하 김종윤 김주애
김준식 김준희 김지수 김지숙 김지순 김지영 김지환 김지희 김진영 김진희

김창보 김천근 김천근 김태승 김태인 김태호 김하니 김현정 김형배 김혜미 김혜옥 김홍희 나선영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민영 남정식 노미경 노상경 노유리 노준희 노현택 노혜련 도경숙 동근숙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마미주 문명동 문성훈 문정희 문지우 문지의 문창배 민선애 민점식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남준 박누리 박다정 박달래 박동주 박명숙 박민경 박민영 박보건 박보라
박상일 박상호 박선미 박선은 박성일 박성희 박순규 박순양 박시백 박신영 박야일 박영환 박은국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인화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종철 박종필 박진우 박창숙 박 철 박한솔 박현희 반영신
배덕민 배윤주 백미화 백수경 백재선 백진희 백현주 변종석 변하연 서매순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미진
서정록 서주형 서중석 서호필 석순용 선혜란 성희옥 손동각 손성권 손영익 손은경 손인범 손주영 송선화
송영란 송주관 송창국 신복순 신석호 신수정 신숙희 신승애 신연실 신은희 신한나 신현훈 신희수 심귀황
심미경 심이영 심인섭 심한권 심혜진 안문필 안민희 안선영 안소진 안인숙 안장현 안태량 안향미 안희옥
양현준 어수진 엄기양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오길승 오정자 오정희 오학래 옥 샘 유남숙 유명숙 유보배
유희정 윤길중 윤두선 윤명섭 윤미선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 영 윤정은 윤준서 이강수 이경덕
이경아 이경재 이경훈 이경훈 이경희 이계삼 이광석 이금희 이남희 이달호 이도건 이동진 이미랑 이미리암
이미영 이민규 이범석 이석원 이선진 이성호 이수용 이수정 이순웅 이승민 이승범 이알찬 이연주 이영화

후원해 주시는 분들
2008년 1~2월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인경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례 이정민
이정우 이제현 이종실 이주옥 이준범 이지혜 이지환 이진 이진옥 이진호
이진희 이철우 이한호 이해창 이현규 이현숙 이현진 이형권 이형록 이혜미
이호중 이홍열 이흥규 이흥호 이희국 임덕심 임영희 임원택 임정선 임춘학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기영 장미희 장상숙 장선정 장성아 장영숙 장옥란
장정환 장효정 전경래 전경옥 전권세 전문기 전민숙 전성자 전유미 정경신
정금자 정대수 정민지 정상옥 정선영 정송이 정연수 정영란 정영석 정영화
정용균 정용안 정용일 정용훈 정우준 정은영 정익화 정재윤 정종권 정지영
정진수 정진영 정진이 정헌민 정현강 정현숙 정현진 정희덕 조경애 조미정
조성진 조성진 조승근 조연희 조우성 조윤실 조은경 조은주 조은지 조은진
조응현 조자영 조한라 조현경 조현숙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주기종 주영은
주용춘 지덕근 지선미 지세진 지혜름 진영욱 차상훈 차순정 천종민 천진수
최경일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미숙 최병희 최보경 최보미 최석문 최선희
최승우 최우영 최유정 최윤선 최익 최정민 최정숙 최정은 최진철 최하정
최혜영 최혜원 최희태 추경미 표희철 하경남 하선미 한남희 한명숙 한상배
한송희 한양재 한주영 한지훈 한혜선 한혜원 허건 허보영 허정일 허진태
허창 홍갑출 홍도순 홍성미 홍승대 홍순희 홍영희 홍은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황성운 황재연 황해진 황희준

(주)지암메디테크

〈특별후원〉 송형탁 남미란 송원재 방귀희 김수경 김종훈 은하얀 힘내세요
이복진 김연미 김동일 조민정 윤금순 이상아 유정임 윤희수 김해진 정우재
마미주 한희숙 창성교회 (주)지암메디테크 영은교회 해피빈

* “노들의봄”기간 후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은 모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모집

장애 인구의 50%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국민으로 누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해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http://www.nodl.or.kr>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교사지원 문의>... 02-766-9101(노들야학 사무국)

010-3227-1757(교사대표)

nodl@paran.com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후원인을 모집합니다!

| CMS 후원 가입 안내 |

CMS 후원은 후원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새로운 후원방식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출금에 필요한 정보(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저희 야학(담당자)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766-9101 / 010-9299-1757(안소진))

| 은행 자동이체 신청 안내 |

통장,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은행의 자동이체용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좌 번호 |

국민은행 835-21-0312-815

외환은행 170-19-30457-4

* 지로 번호 : 7648533

기업은행 133-025369-02-019

우리은행 470-07-035448

전구좌 예금주 : 박경석

농협 029-12-200545

조흥은행 904-04-255208

신한은행 353-02-276437

하나은행 757-810128-43007